

[1문단]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웬만하면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공감**해야죠. 두 명제가 모두 참이나 모두 거짓인 게 불가능한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답니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무모순율. 명칭에 대해서 **공감**해봅시다. “모순이 없어야(無) 한다는 규율”이겠네요.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모순 관계가 뭐였죠? (기억 안 나면 다시 올라가서 찾아주고, **연결** 합시다.) 둘 다 참이거나 거짓이면 안 된대요. 둘 다 참인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OK. 다보탑이 지금 경주에 있긴 하지만,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어’라고 말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둘 다 참인 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거짓인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지 않다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다보탑이 경주, 개성 둘 다 아닌 다른 곳에 있거나 아무데도 있지 않으면 되겠네요. OK 둘 다 거짓인 것도 가능합니다. 모순 관계가 아니네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 이 문장에 대한 (모순 관계에 대한 **연결**을 통해)**공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순 관계’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모순 관계가 뭐였지?’하며 **연결**하고, ‘왜 모순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하며 **공감**했어야 합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당연하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이를 두고’라는 표현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는 **연결**에 대한 단서입니다.

지칭 표현은 대개 앞 문장을 지칭합니다. 앞 문장을 보죠.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입니다. 만약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개성에 세웠다면 다보탑이 개성에 있었겠군요. 이를 두고,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능세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능세계 = 그럴 수도 있었던 세계>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입니다. **구체화**해봅시다. 다보탑이 개성에 있으면서 개성에 없는 가능세계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럴 수는 없으니까.

[2문단]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능세계를 보자마자 다시 떠올려줘야(**연결**) 합니다. <가능세계 = 그럴 수도 있었던 세계>였죠 그런데 이게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요.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부터 가능세계 개념을 통해 필연성/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가능하다 = 적어도 한 가능세계에서 성립>, 그리고 <필연적이다 =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입니다.

<가능세계 = 그럴 수도 있었던 세계>이므로, <가능하다 = 그럴 수도 있었다>, <필연적이다 =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재구성**할 수 있겠네요.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Q이면 Q이다”는 <필연적 = 그럴 수밖에 없다>입니다. 당연하죠. 만약 다보탑이 경주에 있으면, 다보탑이 경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겠죠. (**공감**)

+ “만약 Q이면 Q이다” 명제가 필연적이란 것은 배경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을 수도 있었으므로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는 가능합니다. BUT 다보탑은 경주에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는 필연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

유성 국어

립하지 않겠네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3문단]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하겠네요. (예측)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미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기차 놓치고 지각한 이미지를 그림시다. (이미지화)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잉? 할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가 돌 때는, 당황하지 말고 연결을 하든, 구체화를 하든 해야 합니다.

전통 논리학에서는 앞부분이 거짓이면 뒷부분의 참거짓이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라는 표현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는 연결에 대한 단서입니다. ‘그럼에도’가 쓰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뭐가 그럼에도일까요? 연결합시다. 역시 지칭은 대개 앞문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연결하면 ‘앞부분이 거짓이면 뒷부분의 참거짓은 상관하지 않음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앞부분은 <기차를 탔다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례에서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어떤 게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뒷부분에 왜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오지 않냐고 묻는군요.

쉽게 말해서, 이미 앞부분이 거짓이라 뒷부분은 아무거나 올 수 있는데 왜 안 그러냐?라고 묻네요. 질문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내가 기차를 탈 수도 있었으므로 내가 기차를 탄 가능세계는 있겠죠. 그걸 생각해봅시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당연하죠. 내가 기차를 탔지만, 그럼에도 지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그럴 수도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가능세계 = 그릴 수도 있었던 세계>를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기차를 타면 지각하지 않는 게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다고요?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차를 탔다면 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상상이긴 합니다.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건 조금 더 비현실적인 상상이고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다 = 더 현실적인 상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시 잉? 할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가 돌 때는, 당황하지 말고 연결을 하든, 구체화를 하든 해야 합니다.

아까 질문을 떠올려 연결시킵시다. 아까 “이미 앞부분이 거짓이라 뒷부분은 아무거나 올 수 있는데 왜 안 그러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군요. 일반적으로는 뒷부분에는 현실세계와 더 유사한 진술이 온다고 합니다.

[4문단]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뒷부분을 살짝 보면, 개념을 ‘나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이 ‘나열’될 때는 표시를 해두고 굳이 머릿속에 뱉세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와서 봐도 보기 편하니까요.

유성 국어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가능세계의 일관성 = 일관적으로 무모순율〉이라고 **연결&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능세계의 포괄성 = 가능한 모든 것을 포괄함〉이라고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가능세계의 완결성 = P or ~P 중 딱 하나만 성립 = 배중률 성립〉이라고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 구체화합시다. P에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를 넣어보면, 모든 가능세계에서 다보탑은 경주에 있거나, 경주에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의 독립성 = 가능세계끼리는 독립적임〉라고 **재구성**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이해하자면 가능세계끼리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겠죠.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별 얘기는 없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지문이었습니다. 접속어의 시그널을 활용해 연결하여 공감하고,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는 게 중요했죠. 지문을 스캔하며 떠오르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세계 = 그럴 수도 있었던 세계들

다보탑은 경주에 있었을 수도 있었으므로 → 다보탑이 경주에 있는 가능세계 있음 (다보탑이 경주에 있는 게 가능하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으면서 다보탑이 경주에 없을 수는 없으므로 → 그런 가능세계 없음 (무모순율)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들은 →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

현실세계와의 유사성 = 조금 더 현실적인 정도

앞부분이 거짓이더라도 뒷부분에 오는 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은 진술

가능세계 네 가지 특징 일관성/포괄성/완결성/독립성 - 보고 풀 것임.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1차적으로 지문을 최대한 보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나는 내용만으로 대충 선지를 소거한 다음,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2차적으로 지문을 확인하며 답을 확정합시다.

〈1차 선지 판단 기준〉

확실히 틀린 선지	⇒ XX 표시
틀린 것 같은 선지	⇒ X 표시
진짜 모르겠는 선지	⇒ △ 표시
옳은 것 같은 선지	⇒ O 표시
확실히 옳은 선지	⇒ OO 표시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배중률이 뭐였지? 잘 기억 안 납니다. 일단 △치고 넘어갑시다.

②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능세계에서 성립하죠. XX

③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필연적인 것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했습니다. XX

④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무모순율은 p와 ~p 둘 다 참or둘 다 거짓인 게(모순) 불가능하다는 규율입니다. XX

⑤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전통 논리학은 “앞부분이 거짓이면 뒷부분은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앞부분이 상관없다고 했네요. XX입니다. A가 아니라 B죠.

지문을 안 보고 1차 판단으로 남은 선지는 ①이네요. 지문에서 배중률이 뭐였는지 찾아봅시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

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OK 괜찮네요. ①이 답입니다.

2.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은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고, ㄴ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네요. 둘은 동시에 참이 될 수 있으므로 모순 관계가 아니라 했습니다.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다보탑이 경주가 아닌 곳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런 가능세계가 있겠죠. OO입니다.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를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 명제입니다.(만약 Q이면 Q이다) 이게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모든 가능세계’겠네요.

따라서 선지의 말을 재구성하면 <모든 가능세계 중에 ㄱ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네요. 아니요? 다보탑이 경주에 없을 수도 있었으므로 ㄱ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있겠죠. XX입니다.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습니다. 모순 관계가 아니죠. OO입니다.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ㄴ이 거짓이라는 건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보탑이 개성이 있는 가능세계는 없겠죠. 가능세계는 ‘그럴 수도 있어야’ 존재하는 거니까요. OO입니다.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모순 관계가 아니라 했습니다. OO입니다.

답은 ②네요.

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를 보기 전에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는 문제네요. ㉠은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였습니다.

앞부분이 거짓이면 뒷부분은 상관없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뒷부분은 현실세계와 유사성이 높은 게 오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즉, 기

차를 탔을 때 지각을 하지 않는 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인 거죠.

①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차를 탄 가능세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타지 않은 가능세계는 상관없죠. XX입니다.

②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역시 같은 이유로 XX입니다.

③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기차를 타고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유사성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유사성이 더 낮겠죠. OO입니다.

④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나, 가능세계의 ‘수’는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칩시다.

+사실 생각해보면 가능세계는 수 개념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능한 것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수적으로 ‘무한’인 거죠. 기차를 타고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도 ‘무한개’이고, 기차를 타고 지각을 한 가능세계도 ‘무한개’입니다.

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현실세계에서 거짓인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대 관계 = 둘 중 하나만 참 or 둘 다 거짓>입니다. 적용해보죠.

둘 다 참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안 되네요.

그럼 둘 중 하나만 참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괜찮네요.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것은 아니다 +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둘 다 거짓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것은 아니다 +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괜찮습니다.

한편, 표시해두었으니 가능세계의 4가지 성질을 보면서 풀어도 좋습니다.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완결성은 $\text{Por} \sim \text{P}$ (모순 관계) 중 딱 하나가 성립해야 한다는 성질입니다.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모순 관계가 아닙니다. 둘 다 반드시 참인 명제니까요.

-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포괄성은 가능한 건 모두 포괄한다는 성질입니다.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쓴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성에 따라 이러한 가능세계가 존재할 수 없죠.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완결성은 $\text{Por} \sim \text{P}$ (모순 관계) 중 딱 하나가 성립해야 한다는 성질입니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모순 관계가 아닙니다. 또 둘 모두 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선지입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 ‘평가원이 지문&선지를 애매하게 서술했다.’입니다. ③에서 “~중 하나는 “을 “~중 적어도 하나는”으로 바꾸는 순간, ③이 완벽하게 옳은 선지가 됩니다. 하지만 “~중 하나는”이라고 표현하니 “~중 적어도 하나는”이라는 건지 “~중 딱 하나만”이라는 건지 해석하기 애매해 집니다. (지문에서는 후자로 쓰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현장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도 답으로 고르지는 말아야 합니다. 평가원은 절대 애매한 정답 선지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

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 or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것은 가능합니다.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가능한 것은 가능세계에 포괄되죠. OO입니다.

-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일관성은 무모순율입니다. 모순이 없어야 되는 성질이죠.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가능한 것은 가능세계에 포괄된다’는 포괄성 때문입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sim P$ 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 $\sim$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sim P$ 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sim P$ 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능세계를 통한 답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sim B$ 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sim P$ 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sim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

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 ㉡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 ㉢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 ㉣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sim P$ 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 ㉤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2.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 ㉣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 ㉤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 ㉢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 ㉣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